**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교회(37) - 다윗이 체험한 8미션 축복(시23:1-6) 10/16/2016**

지난 주에 이어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체험하고 확인해야 할 8미션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겠다.

이것이 왜 중요하냐? 분명히 미국과 세계복음화은 하나님의 뜻(절대 계획)이고, 우리 개인과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.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렘넌트 시대는 올 것이고, 반드시 와야만 한다.

**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미션을 찾아내야 한다.** 내가 이제 뭘 위해 살 것이냐? 뭘 위해 공부하며, 뭘 위해 성공하고, 뭘 위해 돈을 벌어야 하냐는 것이다. 신자가 이것을 못 깨닫고 사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고생만 하고, 어느 날 허무해지고, 그러다가 영적 문제도 오는 것이다(행10:38대로 자꾸 눌리고 시달리는 문제)

미션을 찾으라는 말은 뭘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다.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으라는 것이다.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 축복을 누렸다.

**지난 주에는 우리는 풍랑 속에서 이것을 체험한 바울을 보았고,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.**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 시작했고,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겪었다. 그러나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“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.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”(행13:22)고 했다. 그 가능했던 비밀을 8미션으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.

**1. 8미션 중에 첫 네가지 미션은 나 자신을 위한 미션이다(나의 복음, 나의 말씀, 나의 기도, 나의 전도를 체험)**

 구원 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, 나를 살리는 미션을 하라는 것이다.

 내가 죽어 가면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. 반대로 내가 살아나면 내 문제, 가정, 직장, 시대의 영적 흐름이 보인다.

**1) 여기서 “나의 복음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.**

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보이면서 시작된다. 성경을 보면서도 “이래서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실 수 밖에 없었구나”. 남의 문제를 보면서도 보여야 하고, 특히 내 문제를 보면서 이것이 보여야 한다.

 아담이 타락을 했다. 그래서 세상에 저주가 시작되었다.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. 아담이 타락할 수 밖에 없도록 뒤에서 유혹한 자가 있었고, 그 존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다(요8:44)

**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?** 영적인 눈이 열리고,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.

 삼상 16장에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,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악신에 들린 사실을 본 것이다.

 사울이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했다. 그런데 상관없었다.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었다.

**②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체험했냐? 1절에 그 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였다.**

 “부족함이 없다”,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다. 행복하고, 충분하고, 모든 것이라는 것이다.

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주는 것은 기본이었다(2절). 때로는 지치고, 실패의 시간이 와도 상관이 없었다(3절)

 진짜 중요한 체험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?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시간이다(4절)

 **“사망의 음침한 골짜기”가 뭐냐?** 죽음의 자리,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시간이다.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. 마16:16-19에 그리스도가 약속한 축복이다.

 그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한 정도가 아니다. 나중에는 자기 가문, 국가,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었다.

**③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할 일은 하나였다. 양은 목자에게만 붙어 있고, 목자의 인도만 잘 받으면 된다.**

 목자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맹수에게 물리고, 목자의 인도를 못 받으면 헤메고 그러다가 마귀 인도 받는다.

**2) 어떻게 그 분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고,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? 거기서 세가지 기본 미션이 나온다.**

 아침에 하든, 한 밤중에 하든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한다. 그것을 “3오늘”이라고 하는 것이다.

**① “나의 말씀”이다. 4절하에 “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”라고 했다.**

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면서 양을 공격하는 자들을 쫒아내는 공격 무기이기도 하다.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(시119:50), 인도도 받고(시119:98-100), 영적 싸움(엡6:17)도 하는 것이다.

 공부를 하든, 사업을 하든, 말씀 속에서 모든 인도를 받아야 한다. 그 속에 다 있다(추천도서 “팀하스의 P31”) **② “나의 천명 기도”이다.**

 **5절에 “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,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”**

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흑암 세력을 무너 뜨리고, 증인으로 서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명이다.

 원수의 눈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다.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다는 말은 성령충만을 의미하는 것이다.

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이지 않고,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(고후4:8). 이 증거를 가진 자로 세상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천명 기도다. 정시 기도는 기본이고, 24시 기도로 가는 것이다.

**③ 여기서 나오는 것이 마지막 “나의 전도”다.**

 **7절에 “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”**

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다. 여기서 참된 전도가 나온다.

 매순간을 그 분의 은혜 속에 사는 내가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. 언제까지인가?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이다.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거할 자를 찾아 같이 가는 것이다. 그것이 전도다.

**2. 이렇게 자신이 살아나면 따라 오는 것이 절대 미션이다.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다.**

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다(그래서 절대 축복, 절대 미션).

**1) 절대 문이다.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비전이 생기고, 그런 문이 열리는 것이다.**

 그렇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쫒겨 다니면서도 시57:8-11을 보면 새벽을 깨며 하는 기도가 있다. “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,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겠으며,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한다”는 기도다.

**2) 절대 시스템이다. 삼상22:1-2에 보면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자기와 생명 같이 할 400명을 만난다.**

**3) 절대 지교회다. 다윗은 자기 왕궁이 교회였다.** 자기 왕궁에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했고, 그래서 마침내 법궤가 들어 올 때는 춤을 출 정도였다(삼하6:16). 늘 왕궁에서 말씀 붙잡았다는 것이다. 나중에는 아예 성전을 따로 짓고 싶어 했다.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못 지었지만 후대까지 전무한 축복을 주셨다(삼하7:1-12)

**4) 절대 시간표다.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든 것이다.**

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고 있는 것이다.

**결론-**이 8미션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? 문제 있는가? 어려움이 있는가?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지 말고, 그 분이 나의 목자라는 이유 때문에 행복하고, 충분하고,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 분께 집중해 보라.

(여유의 시간, 누림의 시간, 조용한 시간, 비밀의 시간, 미션의 시간).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축원한다.